

장애인의 날 맞아 달콤한 봄의 기운 나뉘요!

-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나서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직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3500여 명의 대전지역 장애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KR봉사단원은 어울림 한마당 게임 진행, 배식 도우미 등을 통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직접 솜사탕을 만들어 나누어 주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신철수 경영지원처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이 같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공단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철도재해예방 홍보캠페인 전개

- 국토부 등 관련기관 공동 시행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4개 역사와 안전취약 건널목 등에서 철도안전 홍보캠페인을 시행했다. 공단은 철도안전 홍보기념품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철도건널목 안전수칙 준수, 철도보호지구 내 무단 행위 금지 등을 당부하며 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철도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철도건널목 사고는 '06년 26건에서 '12년 9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철도재해 예방에 일조하였다. 공단은 이번 하반기에도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철도안전 홍보캠페인을 시행하여 철도재해 예방에 앞장 설 계획이다.

2013년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운영전략 워크숍 개최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지난 25일 본사에서 한국기록협회와 공동으로 '2013년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운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6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단을 비롯한 4개 기관이 '표준 기록물관리 시스템(RMS) 최적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공단은 철도건설 기본계획, 타당성 및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절차서,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준공성과를 관리 사례와 건설사업의 기록관리체계 방향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공단은 철도의 건설 및 국유철도재산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경부·호남·수도권고속철도, 일반철도 등 철도건설사업 준공성과를 24만여 건을 업무분류체계(WBS)에 따라 관리하여 철도시설물 유지보수와 해외사업 수주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정보관리처 관계자는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철도산업정보센터(www.kric.or.kr)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시방서 등의 기술자료를 철도연 등 철도유관기관과 산·학·연 철도종사자,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등 기록관리의 품질 향상과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혁신본부 이정철 기자>

건설현장 대상 전문법률지원 네트워크 운영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노반, 케도 등 철도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상담클러스터를 개설하는 등 건설현장 대상 전문법률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계약 및 설계변경 관련 공사현장의 불필요한 비용 유발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준법지원활동을 통해 현장의 민원해결을 적극 지원하여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국가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처장은 "철도건설은 많은 법률과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 기간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길어 다른 분야보다 민원과 소송발생이 빈번하다"며, "법적용이 필요한 업무수행 시 보다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민원을 예방하고 기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12년 건설사업 참여 우수업체 선정

- 우수업체 입찰참여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지난해 112개 공사현장의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한 시공, 감리, 설계분야 85개 협력업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5인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12년 6월부터 '13년 2월까지 평가를 시행하여 삼표이앤씨(주) 등 10개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10개의 우수업체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시공 및 품질·안전·환경관리 등의 현장 상태와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등의 서류평가를 시행하여 각 분야별 90점 이상을 받은 업체 가운데, 시공 중 품질결함 및 안전사고가 없고 최근 3년간 영업정지처분이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다.

우수업체는 오는 5월부터 공단 입찰 참가 시 가점(1점) 및 공단 이사장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품질안전경영처 관계자는 매년 참여업체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과잉시설 없는 설계와 시공으로 투자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유도하고, 품질·시공·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품질결함 및 안전사고가 없는 건설한 철도시설물이 시공되도록 하여 이용자 중심의 철도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철도건설사업 참여 우수업체 지정>

구분	평가대상업체	우수업체	우수업체명	
시공	계	85개 업체	10개 업체	
	토목	21개 업체	2개 업체	삼표이앤씨(주), (주)대륙철도
	건축	11개 업체	2개 업체	국제산업(주), 성일건설(주)
감리	계	31개 업체	4개 업체	
	토목	3개 업체	-	-
	건축	5개 업체	-	-
설계	계	8개 업체	2개 업체	
	토목	8개 업체	2개 업체	(주)유신, (주)삼보기술단
	건축	6개 업체	-	-

철도설계 VE 시행으로 497억원 사업비 절감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VE를 시행한 결과, 터널 및 교량 구조물에 대한 공법 개선, 새로운 기술 및 재료를 활용한 시공방법 변경 등 총 62건을 정비하여 사업비 497억원을 절감했다.

사업비 절감 세부 사항은 수요를 감안한 정거장 규모 조정으로 269억원, 터널 내 지반보강 및 굴착공법을 개선하여 64억원, 정거장 통과속도를 감안한 분기식 형식(노스가동 고정) 변경으로 49억원, 터널 내 곡선구간 콘크리트 케도 시공방법을 현장타설에서 사전제작형 패널로 변경하여 10억원, 비탈면에 대한 보강공법(Soilnailing) 시공간격을 1.2m에서 1.4m로 조정하여 13억원 등이다.

이번 성과는 분야별로 설계 및 시공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방법을 적용하고 이용객을 고려한 시설물 검토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 결과이다.

설계기준처 관계자는 "설계 뿐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도 VE를 확대·적용하여 '13년도에도 247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 국·공유지 활용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개발사업 추진 -

시설사업본부는 4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70일간 인천시청 및 연구수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며, 지난 25일에는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인천시 연구수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업비 전액은 민간사업자가 조달하며 15만7274㎡(국유지 10만3161㎡, 공유지 5만4113㎡)면적의 부지에 주거·상업·업무·문화시설과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위한 입체적인 복합환승시설 건설하고, 사업구역에 지나는 철도노선 1.6km의 상부를 덮어 근린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단으로부터는 철도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30년간 운영하면서 점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본부는 인천시 및 연구수청과 2012년 6월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연수·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인·허가 단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오는 8월경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2018년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철도역과 공유지 등 철도주변 부지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최초의 사례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철도역 주변이 정비되고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이 해소되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인선 5개 지하역, 여객 편의시설 설치

시설사업본부는 수인선의 인천역, 국제여객터미널역, 남부역, 용현역, 수원역 등 도심 소재 5개 지하역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이용객 편의를 위한 상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인선 5개 지하역은 상업시설 설치를 건설단계에서 반영함으로써 역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연간 약 12억원)을 철도건설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여 선순환적 철도건설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의시설의 규모는 수원역 7개소(140㎡), 인천역 4개소(150㎡), 국제여객터미널 8개소(160㎡), 남부역 10개소(220㎡), 용현역 8개소(200㎡)로, 수원역은 분당선 오리~수원 구간 개통에 맞추어 올해 말에 개통하고 인천역 등 4개역은 2015년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와 관로 동시건설로 중복투자 예방

- 사업비 3억원 절감 및 연 임대수익 9100만원 창출 -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운)는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구간과 태백선 제천~입석리구간 복선전철 통신관로를 매설하면서 (주)LG유플러스가 요청한 통신사업자용 관로를 함께 매설하여 3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매년 9100만원의 임대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본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의 통신관로를 유상으로 동시에 건설하는 것은 중복투자를 예방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임대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규성 정보통신처장은 "앞으로도 통신사업자와 동시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국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예산절감 및 수익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동시건설 : 철도연변 광전송로(통신관로) 매설 터파기 작업 시 통신사업자용 관로도 함께 매설함으로써 중복터파기 방지로 사업비 절감